## 설명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가제, 초안) --kyunpark by yeonwlee

“저는 해외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한 뒤에 군대를 다녀오고, 일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공장도 다니다가 인공지능 하시는 교수님이 하는 회사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4년 정도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전공적으로도 안다고 보기 어렵고) 일은 했지만 내가 이걸 알아서 다시 할 수 있진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이 상태로는 딴 데 지원하기가 걸리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친구, 전 회사 팀장님이 42서울을 나오기도 했고 지원금도 주니까 42서울에 지원하게 됐죠. 울산에서 올라오다 보니 지원금이 좀 컸어요.”

“피신(piscine)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였어요. 옆에 사람 적당히 눈치 보고 물어봐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다행히 처음 만났던 옆자리 분들 중에 잘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셔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첫 평가 때,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이분이 설명하시는 게 훨씬 명쾌하고 명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게 어려웠고, 설명을 좀 더 잘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피신을 통해 설명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해외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따라가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들으니까, 교수님께 가서 여쭤보고 하는데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으로 수학보다 컴퓨터가 더 어렵다고 느끼고.. 결국 구글링하고, 스택오버플로를 보곤 한다는 면에서 42서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그때보다 나은 게, 그땐 딱히 물어볼 데가 있긴 해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인 사람들이 없었는데 여긴 주변에 똑같은 상황, 진도에 놓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보를 얻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또 평가받으면서도 한 번에 다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다 같이 파이팅 해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꼭 합격하자!”